

대구광역시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 경주밖에 더 있나...

경주 대한민국 제1 국제관광 도시 천년의 역사가 담긴 경주를 보러 세계인이 몰려드는 신라 천년 땅 세계자연유산 등 전 세계가 인정 천혜의 자연을 갖춘 곳 바로 경주 APEC 추구가치목표 딱 들어맞아

글심는 순서

1. 총괄
2. APEC 정상회의 유치 경주뿐
3. 개최지 결정, 정치 잣대 '안돼'
4. 세계적 관광은 경주로 통한다
5. 경제 파급 효과...경주가 잘산다
6. 맺는말

경주시가 10부 능선 고지에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유치 깃발을 쫓는다. 고지점령을 눈앞에 두고 '화랑 전시'들은 투구와 갑옷으로 중무장한 채 사활 건 유치전쟁이 한창이다. 주낙영 총사령관의 대혈투다. 대한민국은 지금 APEC 정상회의 유치전쟁을 하고 있다.

2030년 엑스포(EXPO·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실패 이후 국민의 시선은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에 쏠리고 있다.

출사표를 던진 지자체는 △경주 △부산 △인천 △제주이다.

중소도시는 경주뿐이다.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는 단순한 유치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자긍심을 넘어 뻗은 깊이 박혀있는 신라천년의 부활을 세계만방에 알려 모든 길은 경주로 통한다는 인식을 심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주는 대한민국제1 국제관광 도시다. 천년의 역사가 담긴 경주를 보러 세계인이 몰려드는 신라천년의 땅이다.

세계자연유산 등 전 세계가 인정하는 천혜의 자연을 갖춘 곳 바로 경주다. 경주가 APEC이 추구하는 가치 및 목표와 딱 들어맞는다.

■APEC 개최 경주뿐이다

경주는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유산의 보고(寶庫)이다. 불국사, 석굴암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4점, 국가 문화재 등 360점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적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도시라는 점은 어느 사람도 감히 부인할 수 없다.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당연히 경주에서 개최하는 것이 당연하다.

경주는 산업 발전의 중심이다. 포항, 구미, 울산과 가까워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인사들의 일정 협의는 큰 장점으로 꼽힌다.

유치전에 뛰어든 후보 도시와 달리 바다에 접해있지 않고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안전한 경호가 한 것이 유치 당위성을 말해준다.

이뿐 아니다. 1-2시간 내 김해·대구공항, KTX역이 있어 이동이 편



APEC 2025 APEC 정상회의 개요	
위상	세계 최대 지역경제협력체
개최	2025년 11월(한국)
참가	한국·미국·일본 등 21개 회원국
효과	생산유발 1조783억원, 취업유발 1만명
내용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협력의 (정상·고위관리·기업회의)
산정	2024년 상반기(예상)



신라천년 부활 세계만방 알려 모든 길 경주로 통한다



리하다. 정상·수행원·기자단을 수용할 숙박시설과 국제회의를 위한 대규모 회의시설도 갖춰진다.

경주는 지난 10년간 APEC 교육부 장관 회의, 제7차 세계물포럼, 제14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등 대형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충분한 역량이 있음을 보여줬다. APEC 정상회의 개최지 자격을 충분히 갖춘 지자체는 오직 경주뿐이다.

■세계로 뻗어가는 경주

APEC 정상회의는 2025년 11월 5천 년 유구한 역사가 흐르는 대한민국에서 열린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1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다.

정상회의 개최도시가 얻게 될 유무형의 사회경제적 유발 효과는 대단하다.

세계문화유산이 산재한 중소도시 경주에서 첫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면 한류열풍에 더해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세계적인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격은 물론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의 글로벌 도시인지도 한 단계 올리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이 아닌 소규모 지방 도시에서의 개최는 APEC이 지향하는 '비전 2040'의 포용적 성장과 정부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 균형발전의 가치 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모델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의미하는 APEC은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12개국 간 각료회의가 시작됐다.

1993년부터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 명실상부한 여내 최고위급 지역경제협력체로 발전했다.

우리나라는 호주와 더불어 APEC 창설을 주도했다.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인 1991년 이미 서울 각료회의를 개최해 한강 격인 서울 선언을 마련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APEC 출범과 함께 이미 주도국으로 자리매김했다.

2005년 제13차 정상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하며 또 하나의 대역사를 만든 바 있다.

2015년 필리핀에서 열린 제23차 APEC 정상회의에서는 2025년 정상회의를 또다시 우리나라에서 개최기로 했다.

부산 개최 이후 2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린다.

■화랑정신 세계 보여주자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의 외교·경제·문화적 영향력을 세계로 확산,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방균형발전 등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 정상회의와 같은 대형 국제회의는 개최국과 개최도시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회의만 한다면 한 도시의 인프라와 같은 물질적 발전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전통과 함께 경제발전상과 미래 비전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주시장은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에 세계축제도시연맹 회원 도시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끌어냈다.

지난달 27-29일까지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세계축제도시연맹(WFA) 총회에 참석, 유네스코 세계유산 활용 한 축제 사례를 발표한 데 이어,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APEC 정상회의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 도시에서 여는 것이 포용적 성장을 지향하는 관례다.

경주는 현재 유치 의사를 표명한 도시 가운데 유일한 기초자치단체다.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라도 지방도시인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해야 할 충분한 명분과 당위성은 충분하다.

김성용 기자



! 단체장일정 !

박남서 영주시장은 6일 오전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강당에서 열리는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부설 노인대학 입학식'에 참석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6일 오후 주왕산면 하의리에서 시행하는 '2024 지역특성화 재난대응훈련'에 참석한다.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감감한 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대구광역시일보는
독자의 마음까지
생각합니다.

광고·구독문의
053-253-0000



김재우·서재무 씨 군위군에 각 300만원 기탁

김재우 씨가 군위군 고향사랑기부제에 300만 원을 기탁했다. 김씨는 자연사랑 연합회 김민정 군위지회장의 사위로 장모님의 기부 선정을 맡고자 군위군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

그는 “매년 장모님이 교육발전기금으로 나눔을 실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장모님과 배우자의 고향인 군위가 더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고 전했다.

취업지원기금도 군위군청을 방문, 지역의 교육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교육발전기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서재무 대표는 기탁식에서 “오늘 기탁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달성군, 아이 울음소리 끊이지 않는 인구정책 빛난다

전국 군 지자체 중 출생아 1위 아이울음소리 끊이지 않는비결 합계 출산율 1.03명, 직전 분기 전국 0.6명과 뚜렷한 대조 보여

인구소멸위험 문제는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다. 전국의 인구는 저출생과 고령자 사망 증가에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구소멸위험이 저발전 낙후지역에서 더욱 집중적으로 나타나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인구감소와 소멸위험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저출산과 일자리부족 등이 꼽힌다.

결혼 후 주거 문제, 금전 계획 등을 세우면서 실질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출산과 육아를 실제로 경험하면서 계획했던 자녀수가 줄어들기도 한다.

하지만 27만명이 살고 있는 달성군의 사정은 다르다. 국내 군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출생아 수를 기록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달성군이 높은 출생아 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감사하고 기쁘다”고 말했다.

최 군수는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성군을 만들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아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인구정책 성공 지자체로 손꼽힌다.

이 사실은 지난달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자료에서 확인됐다.

달성군은 전국 82개 군 지자체 중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했다.

그 수만 1700명이다. 같은 시기 전국 출생아 수가 23만 명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때 그 규모를 더욱 뚜렷이 실감할 수 있다.

이뿐 아니다. 달성군의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1.03명으로, 출생아 수 1,000명 이상 지자체 중 1위다.

직전 분기(2023년 4분기) 국내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초로 0.6명대로 떨어졌다는 소식과 대조되는 결과다.

이 같은 희소식은 하루아침에 나타난 것이 아니다.

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라는 군정목표에 걸맞은 다양한 보육·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임신 전 검사(신혼부부 예비검진) △출산축하금 △우리아이 출생 축하통장 개설 지원 △분만 및 산후조리원 비용 감액 △예쁜 이름 지어주기(무료작명) 등 달성군에서 진행되는 자체 임신·출산 지원 사업이 적지 않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

무료로 유모차를 빌려주는 ‘아기사랑 유모차대여사업’,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지역 오토캠핑장 이용을 지원하는 ‘다둥이 가족 캠핑카라반 이용요금 지원 사업’ 등이 육아의 무게를 덜고 가정의 즐거움을 더한다.

대구시 구·군 중 처음으로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을 열어 맞벌이 부부의 육아고민도 줄였다.

달성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추후 사교육을 이유로 이사하는 등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종 교육 사업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달성교육재단 설립, 영어교사 전담배치 사업, 장학금 지원, 해외 영어캠프 등이 그 예다.

조여은 기자



대구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7일 재오픈

폐쇄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달성군 다사읍에서 운영 재개

대구시가 오는 7일부터 달성군 다사읍(옛 외국노동자지원센터)에 ‘대구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개소한다.

지난해 말 중단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업무를 대체한다.

시는 2024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외국인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연간 2억 원 한도로 3년간 국비를 지원받는다.

올해 총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구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기존 대구·경북 거점센터로서 운영되던 센터

의 지원 공백을 최소화한다.

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기존 시설을 활용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개소될 ‘대구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행정·통역지원 △한국어, 정보화, 법률 등 생활적응 관련 교육 △다양한 문화체험행사 운영 등 외국인근로자가 체류함에 있어 필요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대구고용노동청과 같은 지원기관 및 의료·법률 등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다양한 외국인근로자 대상 지원사업을 발굴·지원하는 등 향후 외국인근로자가 효율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분야를 점차적

로 확대한다.

시는 이번 센터의 재오픈을 통해 기존 거점센터의 지원 공백을 해소한다.

외국인근로자가 건강한 지역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하고 나아가 대구시가 글로벌 도시로서 한걸음 더 나아가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구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지하철 2호선, 대실역 1번 출구(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863)에 위치하고 있고,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금·토요일은 휴무이다.

안중근 대구시 경제국장은 “외국인근로자는 소통, 적응, 정보 교류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이를 통합해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통일이란 한민족의 진정한 바람이자 희망

2024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위협의회 평화통일 시민교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위군협의회가 마련한 ‘2024 평화통일 시민교실’이 군민회관에서 열렸다. 행사는 지난달 28일 열렸는데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안보단체협의회 회원 및 노인복지회관 회원,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최근 북중 국경에서 북한, 왜 북한인권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에서 북중 국경에 가서 북한의 모습을 사진으로 직접 담아 세상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북한 주민들의 실상만을 전했다.

그는 북한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사회 인권유

린 실상이 국제사회에 드러나야 하는 이유와 평화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민주평통 평화통일 한출생각 수장자인 지역주민 임순희씨는 “나에게 통일이란 한민족의 진정한 바람이자 희망이다. 이유는 이땅에 같이 호흡하면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의 인권적 존중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며 통일을 강조하며 말했다.

이우석 회장은 “북한의 대남·통일노선 전환, 각종 도발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개최되는 행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알고 평화통일은 어떤 방법과 형태가 좋을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말했다.

박재성 기자

수성구, 분리배출 유도 깨끗한 환경 조성

쓰레기 배출 다국어 현수막 게시

수성구는 외국인 거주자에게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법을 안내하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를 함께 표기한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현수막을 게시했다.

지난해 수성구가 불법투기로 적발한 767건 가운데 외국인 적발 건수는 총 12건으로 재작년 7건보다 71%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량

제 봉투, 재활용 폐기물 분리배출이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나라의 외국인이 이러한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의도치 않게 불법투기 주범이 되는 경우도 더러 생겼다.

수성구는 지난달 28일 황금2동 북개도로를 비롯해 대구한대학교, 수성대학교 등 외국인 다수 거주지를 중심으로 다국어 불법투기 금지 현수막을 설치하며 홍보에 나섰다. 또한 불법투기 단속과 예방 활동도 꾸준히 한다.



중구청-우리공간연구소 행복 문화나눔 협약 체결

중구청은 5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우리공간연구소와 지역 내 문화소외계층 지원과 유기적인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행복한 문화나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협력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구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매월 나눔티켓 100매(180만원 상당)를 지원한다.

양경호 대표는 “어린이들이 문화 전시회를 보면서 창의력 개발과 꿈을 키워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주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 향유의 자리를 마련해준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우리공간연구소는 전시기획, 디자인 제작, 연출, MD상품 등을 직접 제작하는 전시 콘텐츠 전문 기업으로, 3월 30일 대구아일랜드(83타워)에서 스폰지밥의 우당탕탕 시간여행전을 시작으로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한다.

동구청, 음식점 위생수준 높인다

2024 음식점 위생등급제 맞춤형 컨설팅 업소 모집

동구청이 2024 음식점 위생등급제 맞춤형 컨설팅에 참여할 식품점객업소를 모집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위생적으로 우수한 업소에 한해 등급을 지정·공개하는 제도이다.

총 3개의 분야 44개 항목의 평가를 거쳐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는 상수도 요금지원(2회), 위생 용품지원 및 온라인 플랫폼 지정 등급 표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구청은 다양한 지정 혜택에도 불구하고 다

소 까다로운 평가항목으로 인해 신청을 망설이는 영업주들을 고려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원은 전문 업체를 통해 신청부터 지정까지 한다.

신청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30곳이다.

최근 1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이 없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에 의지가 있는 영업주이다.

희망업소는 구청 누리집 공고문 확인 후 필요 서류(컨설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고문에 적힌 메일, 팩스, 우편 주소로 제출하면 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위생등급제 컨설팅을 지원, 음식점 위생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DGB 따뜻한 금융 채무감면 프로그램 시행

DGB대구는 6월말까지 4개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DGB 따뜻한 금융 채무감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프로그램은 지역의 금융 소외계층에게 채무조정을 통한 회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금융기관 최고 수준의 채무감면율을 적용한다.

특수채권(장기연체 채무)을 대상으로 연체한 고객들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감면율(50~90%)을 적용한다.

최장 5년의 장기분할납부 및 성실 상환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상환부담 경감 혜택을 병행한다.

황병우 은행장은 “소상공인·중저신용자 및 중소기업·청년을 위한 금융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DGB대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DGB대구는 은행 여신관리부(053/740/2336)로 하면 된다.

조미경 기자



국힘, 대구 달서갑 유영하 단수추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최측근으로 통하는 유영하 변호사가 국민의힘 공천에서 대구 달서갑 단수추천을 받았다. 지역구 현역인 홍석준 의원은 컷오프(공천배

제)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17차 회의 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단수 추천하는 게 좋겠다는 정무적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직 공천 방식을 결정하지 않은 대구 동구·군위갑과 북구갑 선거구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후보자를 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현역 의원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달서구, 의정비 인상 공청회 통장 참석 하지마...

통장들 “일 시킬때만 동원” 불만 구청-의회 싸고치는 고스톱 성토

달서구 통장들이 매우 화났다. 달서구청이 달서구의회의 의정활동비 인상 공청회에 통장을 참석시키지 말라는 지침을 일선 주민센터에 내려 보낸 탓이다. 때문에 일부 통장들은 달서구청이 의정비 인상 문제는 달서구의회와 싸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달서구에는 768명이 통장이 구청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달서구의회의 의정활동비 인상을 결정하는 공청회는 6일 달서구청 강당에서 열린다. 애초 공청회에 각 동에서 2명씩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를 제외한 서구·북구·중구·남구·달서구·달성군·수성구는 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 기존 110만 원에서 인상 상한선인 150만

원으로 인상을 잠정 결정했다. 2월 공청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3월 초 심의위에서 결정한다. 달서구 통장 A씨는 “달서구에서 일 시킬 때는 통장들 동원하면서 정작 권리를 내세우는 자리에 불참이라고 한다”며 구청의 알파한 수를 꼬집었다. 공청회에 주민만 참석 가능하다는 지침에는 “우리 달서구 주민이 아닌가”하고 불만을 토로했다. 통상적으로 구청이나 구의회를 대립되는 상황에선 통장들의 참석이나 의견수렴에 많은 제한이 따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또 다른 주민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봉사하기 위해 통장을 한다”며 “통장들을 참석 못하게 하면 일반 주민들이 과연 몇명이 참석하겠나”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미 의정활동비 인상을 확정지어놓고 형식적으로 공청회를 여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조미경 기자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방문단이 5일 경북교육청을 방문, 중등 직업교육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구감소 위기 미래세대 교육으로 극복

대구교육청, 전국 첫 지속 가능 가족공동체 형성 교육 적극추진

대구교육청이 올해부터 '지속가능한 가족공동체 형성 교육'을 추진한다. 미래세대가 급격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가족 형성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에서 2024년 0.6명대로, 사상최저치 갱신이 전망되고 국가소멸 위기까지 대두되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미래세대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인식 아래, 학생들이 인구감소를 비롯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족의 가치와 행복을 인식하고 미래가족 형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함양하는 것을 이번 정책의 목표로 설정했다. 대구교육청은 시교육청 전 부서와 모든 산하기

관이 지속가능한 가족공동체 형성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협업체제를 구축해 정책 확장을 도모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급별 수업 설계와 실천을 지원한다. 주요 추진 내용은 △연구회 운영과 수업자료 개발 △가족 형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함양 자료 보급 △모든 학교급에서 지속가능한 가족공동체 형성 수업 △가족공동체 친화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연수 △가족의 가치와 행복 체험 등이다. 참여 중심의 교육과 홍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가족공동체 형성의 중요성에 대한 가정과 지역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확산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저출산과 급격한 인구감소는 우리 사회에 매우 절박한 문제이며, 무엇보다 미래의 주인공 학생들에게 가족 형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정책에 지속가능한 가족공동체 형성 교육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일원으로 서 책임 있는 가치관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캄보디아, 경북교육청에 “직업교육 교류 확대” 요청

캄보디아 학생들 경북 직업계고 입학 글로벌 직업교육과정 공유안 협의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방문단이 5일 경북교육청을 방문, 중등 직업교육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경북의 우수한 직업교육과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진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측이 요청으로 이뤄졌다.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는 1993년에 설립된 정부 부처로 노동, 인력, 직업교육을 담당하

고 있다. 이 자리에는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비롯한 경북교육청 관계자 3명과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캄보디아 학생들의 경북 직업계고 입학과 글로벌 직업교육과정의 공유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주요 회의 내용은 △경북의 글로벌 직업교육과정 공유 △캄보디아 학생의 경북 직업교육 이수 방안 △중등 직업교육 교류 방안 등이다. 행사위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장관은 “요즘 K-컬처가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

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체계로 뻗어가는 경북의 직업교육을 깊이 체감, 캄보디아 학생들에게도 경북교육청의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프로그램 기회가 주어지길 강력하게 희망한다.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과 기초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종식 교육감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경북 직업교육이 나눔과 사회 공헌을 통해 세계직업교육의 표준 K-EDU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의 성과를 캄보디아에 공유하고 양국에 이니셔티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지난해 산악사고 구조 출동 1467건·사상 164명...

경북도소방본부, 봄철 산행 산악사고 각별한 주의 당부



경북도 소방본부는 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입산객들에게 산악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북소방본부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악사고로 인한 구조출동 건수는 총 1467건이다. 인명피해는 사망자 14명, 부상자 150명으로 총 164명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월과 5월 사이에 37명(24.7%), 9월과 10월에는 47명(31.3%)이 발생했다. 시간대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807명(59.3%)이 발생해 주로 등산 철에 인명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가오는 봄철에도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약화된 지반으로 인한 낙석이나 추락, 미끄러짐 등에

의한 등산객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경북소방본부는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돌이나 비위, 낙엽 등을 최대한 밟지 않기, 절벽이나 협곡 등을 지날 땐 낙석에 주의, 겨울철에 준하는 보온용품, 랜턴과 예비 배터리를 지참, 신발은 반드시 등산화를 착용, 최소 2명 이상 동행, 등산로로 산행하기 등의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박근우 경북소방본부장은 “봄철이 다가오며 따라야 하는 즐거이 위해 산을 찾는 도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등산 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빠른 구조를 위해 등산로에 설치된 산악위치 표시판과 국가지정번호 정보를 함께 알려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총선날 TK 광역·기초의원 6곳 재보궐선거

대구경북 기초의원 4곳 경북, 광역 의의원 2곳

제22대 총선이 열리는 4월 10일에 대구·경북 지역 6곳에서 광역·기초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북 재보궐 선거구는 4곳으로 광역의원 2곳(영양군, 울진군)과 기초의원 2곳(김천시 나선거구, 의성군 다선거구)이다. 대구는 기초의원 2곳(중구가 선거구, 수성구 다선거구)이다. 재·보궐선거는 지난 2월 29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권윤동 기자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이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선거 일정은 동시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하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3월 21일과 22일까지 할 수 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월 28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일은 4월 5일과 6일 양일간이다. 투표 시간은 선거일과 사전투표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재·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투표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와 함께 재·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 받는다. 권윤동 기자

영천시, 투자선도지구 5년간 토지거래 제한

영천시가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5년간 토지거래를 제한한다. 최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돼 개발사업이 예정된 곳으로 부동산 투기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상지는 2019년 7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금노동, 작산동, 도동 일원 73만1027㎡(약 22만 1000평)이다. 해당 지역에서 2029년 3월 4일까지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용도별 면적을 확인해야 한다.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녹지는 200㎡, 계획관리지역의 농지 500㎡, 임야 1,000㎡, 그 외 토지는 250㎡ 초과 시 허가 대상이 된다. 대상 토지일 경우 토지거래허가신청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시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계약할 수 있다. 최은하 기자

경북농업기술원, 의료용 헴프 산업 경쟁력 강화

생산량 증대 광 조성 구명 우수 강소기업과 공동연구

경북농업기술원 생물자원연구소는 기능 성분 고품율 의료용 헴프 생산을 위한 스마트팜 재배 기술 개발 연구가 적극적이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국내 의료용 헴프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기능 성분 증진 기술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집중적인 연구로 CBD 고품율 헴프 생산 재배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헴프는 환각성분인 THC(tetrahydrocannabinol)가 0.3% 이하인 대마로 산업·의료용으로 이용된다. 기능 성분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이 뇌전증 특효약으로 알려지면서 세계 시장 규모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생물자원연구소는 CBD 고품율 헴프 생산을 위한 스마트팜 재배 조건 구명과 기술 개발을 위해 2022년 헴프 스마트팜 연구 시설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연구를 한다. 지난해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프(HPLC)를 이용한 CBD 및 THC 분석 조건을 확립했다.

체리블로섬 등 국내 재배 주요 품종의 CBD 생산량 증대를 위한 광 조성을 연구한 결과 백색광과 근적외선광을 동시에 적용했을 때의 CBD 생산량이 백색광 단일보다 4배 정도 증가함을 구명했다. 올해는 CBD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적정 광도, 일장(낮의 길이) 등 재배 조건을 설정하는 연구를 한다.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포항시 강소기업(주)미드바브와 헴프 부문경 재배를 위한 적정 양액 공급 시기 설정 및 기능 성분 증진 효과 구명을 위한 공동연구를 한다. 김성용 기자



틈새없는 복지안전망...건강한 안강만들기!

북경주 행정복지센터가 틈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한다. 지난 4일 안강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산대2리 경로당을 시작으로 관내 경로당 67곳

을 방문, 홍보에 나섰다. 발굴대상은 가정 내 위기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높아졌거나 공과금을 장기 체납 중인 복지 위기 가구 등이다.

북경주 행정복지센터는 발굴된 위기 가구에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공적급여를 연계한다. 복합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맞춤형서비스를 제공, 제도권 밖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민간자원을 연계 지원한다.

경주시민 공감...임신·출산 환경 조성 행정력 집중

경주시, 다자녀 가정 양육부담 덜다 각종 공과금 등 감면·할인 혜택다양

경주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힘든 시대에 경주시의 다양한 정책이 다자녀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민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임신·출산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올 한해 △다둥이 가정 행복한 추억 만들기 사진전 △다북가정 희망카드 발급 △가족진료비 지원 △각종 공과금 감면·할인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면제 등에 주안점을 두고 다자녀 가족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매년 두 자녀 이상 20가족을 대상으로 '다둥이 가정의 행복한 추억 만들기 사진전'을 연다.

활영한 다둥이 사진은 추후 시청 민원실과 신경주역 등에서 전시된다. 참여한 가족들은 "즐거운 추억을 쌓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좋은 기회"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두 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8세 이하 가정에게는 다북가정 희망카드를 발급해 다채로운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원, 주유소, 영화, 놀이공원 등의 분야는 5~7%, 병원 5%, 통신 3% 청구할인된다.

막내자녀가 12세 이하인 세 자녀 이상 가정에는 연중 가족전원 진료비 및 약제비 5만원, 1회 지원한다.

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감면·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18세 미만 세 자녀 이상 가정에게는 자동차 1대 취득세 최대 140만원, 최초 1개의 주택 취득세(19세 미만) 100%, 상수도 사용료 월 최대 5000원이 각각 감면된다.

3인 이상 다자녀 가정은 월 30%(최대 1만 6000원) 전기요금, 계절별 월 2470원~1만 8000원 도시가스요금 각각 할인된다.

18세 이하 두 자녀 이상 가정은 아이누리장난감 연회비와 평생학습강좌 수강료도 각각 면제된다.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지역내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도 제공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다둥이 가정 행복한 추억 만들기 사진전을 둘러보고 있다.

경주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 '박차'

경주농업대 2024 121명 입학 농업발전 토대...중추적 역할

경주시가 지역 전문 농업인 양성을 목표로 2024 경주농업대학을 운영한다.

경주농업기술센터는 5일 센터 내 농업인회관에서 제18회 경주농업대학 입학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열린 입학식에는 교육생을 포함해 주낙영 경주시장, 이철우 시의장, 김형철 경주농어업회의소 회장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입학식은 학사소개를 시작으로 학사보고, 축사등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농업대학 수강인원은 △귀농귀촌 45명

△치유농업 40명 △사과 36명 등 3개 과정 총 121명이다.

올해 교육생 중 최연소 입학생은 귀농귀촌 과정 박보성(여·23)씨다.

최고령 입학생은 사과 과정 임영준(77)씨로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은 올 10월까지 과정별 약 24회, 100~110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수업은 분야를 전문가를 초빙 진행한다. 이론·실습교육, 현장학습, 사례발표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된다.

우수농장과 기관을 체험·견학해 교육생들의 견문을 넓혀 창의적인 농업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에 나선다.

경주농업대학은 2007년 개설된 이래 지난해 까지 59개 과정, 238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지역 내 전문농업인 배출의 산실로 자리매김 했다.

농업기술센터는 귀농귀촌 과정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귀농귀촌 과정 수강생들은 1년 간 지역 농업 전반에 대해 배우고, 현명한 작목 선정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농업대학이 지역 농업인 스스로 역량을 키워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의 토대가 되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 신설한 치유농업과 사과 과정을 통해 지식과 기술에 기반을 둔 농업대전환 대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개강식

가족센터 한국어교육장서 오는 12월까지 주5회 운영

경주시가 지난 4일 가족센터에서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의 일환으로 한국어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

개강식에는 결혼이민자와 전문 강사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어교육 및 센터사업 안내, 강사 소개, 반별 인사, 인권교육 및 폭력예방 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어교육은 가족센터 2층 한국어교육장에서 오는 12월까지 주 5회 운영된다.

각 과정 수준별 맞춤 교육으로 왕기초반, 자녀학습지도를 위한 한국어반, 토픽 읽기반, 토픽 쓰기반, 취업지원 과정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가족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054-779-8929)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은락 센터장은 "오늘 개강식에서 결혼 이민자들의 학구열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한국어 교육이 한국 생활의 안정적인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경주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봄학기 특기적성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경주시가 지역 청소년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2024 봄학기 특기적성 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 과정은 드론항공, 융합코딩, 현대무용, 체스&퍼즐, 화랑문화탐방, 쿠키베이킹, 창의력 멘사, 바이올린 등 41개 과정을 이달 23일부터 6월 16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한다.

참가대상은 지역 청소년 및 성인(화랑문화탐방에 한함)이며, 접수는 오는 18일 ~20일 까지 경주공공서비스예약(인터넷)을 통해 선착순 마감된다.

수강료는 청소년 3만원, 성인 6만원이다. 수강료가 감면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청소년 및 시설 아동은 오는 14,15일 이틀간 청소년수련관 방문 혹은 전화로 우선 접수해야 한다.

운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착한가격업소 간담회 및 친절서비스 교육 가져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분위기 조성, 새 시책 홍보

경주시가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를 위한 친절·전질 서비스 교육

및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 및 간담회는 국제적인 행사 개최 예정에 따른 호의적인 분위기 조성과 품격 있는 친절서비스 강화로 착한가격업소 이미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당일 교육에는 30명의 착한가격업주들이 참석했다.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고객 불만 대응 요령, 품격 있는 사전 서비스, 친절할 손님맞이에 대해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사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소개했다.



영덕 청송
영양 청도
울릉



울릉경찰서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

울릉경찰서는 신학기를 맞아 민·경협력치안을 위해 2024년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된 6명에게 대한 발대식 및 직무교육을 지난 4일 실시했다. 발대식에서 아동안전지킴이들에게 울릉도 지역 아동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동안전지킴이 위촉장 수여, 더욱 내실화된 아동안전 보호막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아동안전지킴이의 역할을 높이는 직무교육도 실시했다. 정윤환 기자

청도군, 작고 강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청도군은 '작고 강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운영 성과로 화양초등학교 학생 수가 2023학년도 대비 총 8명(병설유치원 5명, 초등학교 3명)이 증가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지난해 첫 시행된 작고 강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는 2024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선정돼 화양초등학교에 특성화영어 프로그램 운영, 교육 시설 개선, 역량 강화의 목적으로 지원된다. 조여은 기자



영덕군 농촌신활력사업 제3기 액션그룹 입학식

영덕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은 지난달 29일 영덕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제3기 액션 그룹 입학식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입학식에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제3기 예비액션그룹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성 평가 등을 통해 선정된 총 7개 액션 그룹의 75명이 참여해 이번 사업의 이해와 액션그룹의 역할에 관한 내용을 수강했다. 조여은 기자

타박 타박 걸어서 이달의 청도 관광 9경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도보 여행

청도군이 관광사업 활성화에 시동을 걸었다. 군은 3월부터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도보여행 '타박타박 걸어서 이달의 청도 관광 9경'을 운영한다.

'타박타박 걸어서 이달의 청도 관광 9경'은 군의 주요 관광지인 청도 관광 9경을 문화관광해설사와 관광객이 함께 걸으며 청도 관광 명소를 체험하고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도보여행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매일 마지막 주 금요일 11시에 시작된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며 투어 장소는 △3월 청도 신화랑풍류마을 △4월 청도읍성(둘레 주유일) △5월 쇠마리한옥마을 △6월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 청도레일바이크 △7월 유등연지 △8월 와인터널 △9월 낙대폭포 △10월 운문사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은 회차별 선착순 15명으로 매일 1일 청도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청도관광상품' 이달의 청도 관광 9경에서 예약할 수 있다.

대상은 청도 여행에 관심이 있는 관광객으로 참가비는 무료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적인 해설을 통해 미처 몰랐던 청도의 매력을 재발견하기를 바란다. 매달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는 만큼 청도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여은 기자

영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개소식

영양군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지난 4일 영양군청소년수련관 2층 '나빌레라'반에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13명과 학부모 및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기반으로 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활동·복지·보호 체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영양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나빌레라'는 '나비'와 '레라'라는 표현이 합쳐져서 '나비' 같다는 의미로 청소년들이 자라는 모습, 성장하고 배워가는 모습을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것처럼 청소년들이 앞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의미의 이름이다.

해당 아카데미는 정규 학교수업 이후의 돌봄이 필요한 4~6학년 학생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원 30명 내에서 수시 선착순 모집 중으로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선정 주민복지 과장은 "나빌레라의 의미처럼 방과후아카데미가 단순히 방과 후에 시간을 함께 보내는 공간이 아닌 청소년들의 꿈과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권윤동 기자



영양군지역사회보장협, 2024년 신규 및 주요사업 설명회

복지서비스 공급역량과 공급량 진단 서비스 대상자 지속 관리와 추가발굴

영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달 29일 종합복지관에서 관내 사회복지 관련 시설기관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4년 신규 및 주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자원을 2개월 간 체계적인 조사과정을 거쳐서 지역내 복지서비스 공급역량과 공급량을 진단했다. 조사로 끝내지 않고 지역사회보장 사업의 이해

와 민·관 연대감 형성을 위해 함께 공유하고자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기관별 2024년 신규 및 주요사업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설명회를 위해 조사된 자료는 사회복지정보시스템(행복e음) 등록 후 적합한 서비스 대상자 연계, 지속적인 자료 업데이트 및 관리, 복지서비스 공급계획 및 추가적인 복지지원 발굴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김 모씨(75년생, 남)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과 변경사업, 신규 사업에 대해 알게 되는 기회

가 되었다."라며 "단순한 정보제공 방식이 아닌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어 사업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오도창 공공위원장은 "관내 사회복지기관에서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영양군 협의체의 활동이 더해져 지역사회복지 체계가 더욱 견고해진 것 같다."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민·관 협력력이 활성화되어 지역사회복지 발전과 더불어 군민의 복지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권윤동 기자

영덕군, 과수 개화기 저온 피해 예방·관리 철저

선제 대응으로 저온 피해 최소화 당부

영덕군은 봄철 이상고온으로 개화기가 빨라짐에 따라 과수의 저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기상청과 농진청에 따르면 올해 하루 평균기온 0°C 이상 누적기온은 124°C로 작년 대비 1.9배 높고, 3월 기온 또한 평년 대비 높을 것으로 예보해 이른 개화로 과수의 꽃눈 저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따뜻해진 날씨로 과수가 이른 시기에 꽃을 피운 후 추위가 닥치면 꽃이나 어린 과실 등에 저온 피해가 발생해 결실률이 감소하고 상품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에 영덕군은 'FTA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열풍 방상팬, 미세 살수장치 등을 과



수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작년부터 과수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산을 투입해 저온 피해 경감제, 인공 수분 꽃가루, 인공 수분기, 수정용 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또한 영덕군은 지역 농가에 대한 홍보활동을 통해 개화기 전 저온 피해 경감제를 충분히 살포해 작물의 내한성을 증진시켜 추위에 대비하고, 재해 예방 시설을 수시로 점검해 기온 하강이 예상될 때 즉시 작동시키는 한편, 저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엔 꽃파기 작업을 지양하고 인공수분을 진행해 수정률을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근래 이상기후로 인해 환절기 기온의 폭이 커 과수의 저온 피해가 매년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민관이 힘을 합쳐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저온 피해를 예방을 위한 시설과 자재의 지원을 확대해 농가가 안정적인 농경으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갖은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여은 기자

새 희망 / 새 울릉!

독도 명예주민증
가지고 계신가요?
독도의 주민인 당신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울릉군 울릉도

영천 영주 봉화 고령 의성



최기문 영천시장은 6일 오후 2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북개발공사와 지역맞춤형 매입임대주택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봉화군계획시설 조성사업 리빙암 무상 공급 주민 호응

봉화군은 봉화읍 내성리 지내 '봉화군계획시설(도로공공공지, 공공청사) 조성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리빙암(돌이 다량 포함된 모래질 흙)을 지난 2월 13일부터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 방법은 감리단 사무실(봉화읍 내성리 153번지, 봉화테마트 옆)을 방문해 품질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신청서 작성 시 반출 일정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발주자 상차조건으로 리빙암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대신 운반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전성기 기자



고령군, 건축물해체공사 원스톱패키지 지원사업

고령군은 건축물 해체공사 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건축물해체공사 원스톱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관련단체인 건축사협회는 건축물해체계획서 및 기술자검토확인서 작성하고 전문건설업협회는 건축물해체공사를 시행하며 폐기물처리업체는 해체공사 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이다.

고령군은 이 협약에 귀농귀촌 등 인구유입에 박차를 가하여 여러각도에서 발굴할 것이다. 배영백 기자

태국 유학생 '의성유니텍고 입학'을 축하합니다

태국 우수 유학생 8명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의성군은 저출산으로 학력인구 감소로 학교별 신입생 모집에 애를 먹고 있다. 의성유니텍고등학교가 돌고구를 제시했다. 의성유니텍고 지난 4일 예공관(체육관)에서 태국 우수 유학생 8명과 함께 2024학년도 글로벌 입학식을 가졌다.

최선지 경북교육청 정책국장도 최인호 의성유니텍고등학교 동창회장을 비롯한 많은 내빈들이 우수 유학생과 함께하는 의성유니텍고등학교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55명 신입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함께 응원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력인구 감소의 가속화로 신입생 충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 직업교육의 우수성과 한류문화의 강화된 위상을 배경으로 태국 춘부리 Technologica College와 MOU 체결을 통해 우수 유학생 8명이 2024학년도 신입생으로 의성유니텍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됐다.

이날 입학한 태국 유학생 8명은 앞으로 3년간 학



교생활을 통해 한국어 능력과 전문 기능 역량을 바탕으로 맞춤형 취업을 목적으로 의성유니텍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행복한 동행을 하게 된다. 앞으로 우수 유학생과 함께하는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은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신비감을 바탕으로 생동감 있는 글로벌 교육활동이 기대

된다. 우리문화와 직업교육의 우수성에 대한 강한 자긍심으로 경북직업교육이 세계화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박기환 의성유니텍고등학교 교장은 "태국 해외 우수 유학생들이 안정적인 학교생활과 교육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 및 방과 후 전공심화 교육 기회 확대 등 세심한 배려와 알찬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며, 재학생들과 상호 소통 상생할 수 있는 글로벌 교육 환경 구축으로 국제화 시대 직업교육 선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전 교직원들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박재성 기자

박남서 영주시장, 5일 교통부 '국도28호선 건설' 사업 반영 건의

박남서 영주시장은 5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적동~상방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의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2026년~2030년) 사업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박 시장은 이날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2027년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시가지지를 경유하는 국도 28호선과 국도 5호선과 36호선으로 교통량이 집중돼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량 분산과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해 적동~상방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영주시에 따르면 적동~상방 국도대체우회도로 6.9km가 연결되면 적서교차로에서 봉산교차로까지 4km를 단축하는 영주시가지 외곽 순환 도로망이 완성할 것이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및 첨단베어링클러스터 등 주요 전략사업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전성기 기자

영주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맞손'

'지방소멸 위기극복 상생협력 모델 구축 업무협약' 체결 특화기업 육성 및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 기반 마련



영주최초부터 송호준 영주부시장, 이상목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심재연 영주시의회 의장

베어링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영주시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업을 해법을 마련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5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지방소멸 위기극복 상생협력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송호준 부시장, 이상목 원장, 심재연 영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영주시는 △기업지원 연구개발, 기반구축, 연구장비 활용사업 지원 △공공유재산 소유권원의 주택자금 지원 등에 협력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영주시 기업유치와 육성을 위한 기술 협력사업 지원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기술지원 △영주시 소재 소속 조직의 전문인력 확충 등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지역 특화 제조산업 중·중견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향후 조성될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입주기업의 성장을 위한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호준 영주부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구기관이 협력해 지방소멸 위기를 과학기술로 극복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에 베어링 등 제조산업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목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은 "생기원은 미래 생산기술 대전환을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글로벌 산업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며 "지자체와 함께 지역산업을 분석해 실용화 기술 중심으로 지역 중·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490억 원으로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제조기술센터를 건립해 베어링 제품의 설계부터 성능평가, 시제품 제작까지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전주기적 맞춤형 기업지원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전성기 기자

영천시청 태권도단·육상단 3명, 2024년 국가대표 선발

태권도 강미르·안혜영 선수, 육상 이재웅 선수 배출

영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단, 육상단에서 총 3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했다.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태백 고원체육관에서 열린 2024년 태권도 국가대표선수선발 최종대회에서 영천시청 태권도단의 강미르·안혜영 선수

가 각각 여자 -46kg급과 -57kg급에서 1위를 차지하며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태권도단의 강미르 선수는 2021년 영천시청 태권도단에 입단 후 4년째 꾸준히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왔다. 작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겨루기 국가대표로 출전하 바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46kg급 국가대표로 활약할 예정이다. 안혜영 선수는 작년에 입단해 제104회 전국체육

대회 2위, 우시 2023 월드컵 팀 선수권대회 3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2024년 국가대표 선수 선발 최종대회에서 첫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두 선수 모두 5월에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 예정인 제26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의 국가대표 출전을 확정지었다.

국가대표 자격으로 진천선수촌에 입촌하여 강화훈련에도 참가하게 된다. 그 외에도 두 선수는 올해 개최되는 국제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평가전에도 출전할 예정이다. 육상단의 이재웅 선수도 2024년 육상 국가대표

로 선발돼 오는 11일부터 진천선수촌에서 국가대표 강화훈련을 시작할 계획이다.

2021년 육상단 창단 이후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오던 이재웅 선수는 작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800m 1위, 1500m 2위로 2개의 메달을 따내며 국가대표 선발에 가까워졌다. 올해 대한육상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국가대표에 최종 선발됐다.

이재웅 선수는 올해 국제대회 파견 시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으며, 8월까지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하게 된다. 최은하 기자

진
리
88

램
다
주
YEONGJU

힐링이 필요한 순간 스마트하게 즐기는

영주여행

영주시

지금 바로 스마트폰 마켓 or 앱스토어에서 **영주여행** 을 검색해보세요!

*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여행 중에도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 수칙을 잊지 마세요!

'24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포스터 공모' 수상작 발표



대상 수상작은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문화의 춤" 이란 주제로 출품한 강승현, 정재연 씨의 작품이 선정됐다.

안동시와 (재)한국정신문화재단은 '2024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23일까지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총 265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시는 접수한 265점 작품에 대해 지난달 27일 디자인 및 축제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2점 등 총 6점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에는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문화의 춤"이란 주제로 출품한 강승현, 정재연 씨의 작품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다섯 가지 색상의 천을 활용한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탈과 탈춤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안동에 불어오는 탈과 춤, 흥과 웃음"의 흥인희 씨, 우수상은 "영원히 피고 지지 않는 안동 탈춤 축제"의 이채민 씨, "형형색색 탈의 꿈"의 송영찬 씨에게 돌아갔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대상 2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2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최준길 기자



예천군 '범우리공원 유아숲 체험원' 개원

예천군은 '범우리공원 유아숲체험원'이 5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범우리공원 유아숲체험원'은 범우리 숲에 1만3천㎡ 규모로 조성된 숲속 놀이터로 지난 22년 총사업비 15억 원으로 조성됐다.

지난해 시범운영 후 올해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올해는 유아숲지도사 2명을 상시 배치하고 유아들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 놀이, 치유 프로그램을 계절에 따라 진행한다.

참여 아동들은 숲속 산책로를 따라 산책하고 모험 놀이대, 짚라인, 밧줄 놀이터, 통나무 건너기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이용하며 계절에 따라 변하는 숲을 체험하게 된다.

유아숲체험원은 3월부터 11월 까지 정기형과 자유 이용 형태로 운영되며 비용은 무료다.

연초 정기형 참여기관 모집 공고를 통해 선정된 13개 기관은 매주, 혹은 격주나 월 1회로 참여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유아숲체험원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병욱 기자

울진군, 수돗물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안정적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총력

울진군은 고품질 수돗물 공급과 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상수도 시설개선사업과 통합상수도 설치사업 등의 물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안정적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총력

울진정수장 배수지를 확장하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상수도 배수지 체류시간을 확보하고 급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사업비 51억원을 투입해 울진 정수장 배수지 확충사업을 시행 중이며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이 확장되고 안정적 수돗물 공급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357억원을 투입해 2017년부터 진행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해 스마트미터링, 자동수질, 재염소투입설비 등을 갖춘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시간 수돗물 수질 정보 제공과 수도관 내 침적물을 주기적으로 제거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기여했다.

이 밖에도 북면 나곡5리 급수구역 확장을 위해 총사업비 80억원으로 북면 배수지 신설 1개소, 송배수관로 설치, 송배수가압장 2개소 설치

등을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수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와 신뢰 구축을 위해 울진군 수도정비계획(변경)을 수립하고,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 관리용역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효율적 수질관리로 운영으로 주민 불편 최소화 노력

소규모 수도시설 통합해 효율적으로 수질을 관리한다.

군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8개읍·면 79개소(마을상수도 8, 소규모

급수시설 71)의 소규모수도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강송면 등 지리적으로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은 지역주민의 고통화로 인한 관리인력 부재 및 기후변화에 따른 상습 물 부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분산 운영·관리되고 있는 돌 이상의 소규모수도시설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울진군 직영 관리로 안전한 수질관리 운영효율을 극대화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군은 작년 행정안전부 공모'2023년 상·하수도 경영 효율화 사업'에 '금강송면 삼근2리 3개 부락(새집, 방촌, 신방) 소규모수도시설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수질관리 개선'을 주제로 응모해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총사업비 18억 중 4억의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 추진 중이다.

또한 2024년도 전환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4억 9,000만원 중 3억4,4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금강송면 광회2리(옥방, 죽터골, 불미골) 마을 통합상수도 설치사업을 추진, 올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근남면 노음3리 소규모 수리시설 개선 사업 10억, 금강송면 햇네·양지 취수원 이전설치 사업 2억을 비롯해 울진읍·기성면 배수지 설치공사 8억, 죽변면 후정리 노후관 갱생 사업 등 1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송병복 울진군수는 "올해 사업을 시범운영·관리하며 문제점 및 주민 의견을 수용하고 사업구역 확장을 통해 물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물 복지 소외지역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경산시, 의료공백은 없다... 보건의료협의체 간담회

진료공백 장기화 대비

비상진료 추가대책 수립

경산시는 지난 4일 이강학 부시장 주재로 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추진과 현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산시 보건의료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경산시보건소, 경산소방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청도지사, 경산시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단체장

과지역 의료기관 경산중앙병원, 세명병원, 경북권역 재활병원 등 의료계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비상연락체계 유지 △비응급환자 응급실 구급차 이용 자제 당부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환자이송 전원 △개원의 집단행동 동참을자제하여 줄것을 논의했다.

시는 의료계 집단행동 이후 경산보건소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의료·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진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한비상진료 추가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확대 운영하고,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현황 및 운영시간을 실시간으로 안내 중이다.

이강학 부시장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유관기관과 의료현장인 병원 간의 긴밀한 협조로 의료공백 최소화해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보건의료협의체와 소통·협력을 통해비상시국을 타개하고 시민 모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경운 기자

문경시, 시민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 지원사업

문경시는 드론 산업육성과 시민 드론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2024년 문경시민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지난 4일부터 3월 19일까지다.

총 30명의 교육생을 추천으로 선발해 오는 10월 까지 교육생이 문경시 관내 드론 교육기관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은 후 자격증을 취득한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다.

공고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실기 시험 응시 필수조건인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 또는 신체검사증명 소지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김동수 기자

상주시, 명실상주물의 수요일은 특별해~

2024년 수상하데이(주간특가) 운영

상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명실상주물(https://small.cyso.co.kr)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주간특가 행사인 수상하데이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상하데이는 '수요일엔 명실상주물에서 장보는 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매주 4개의 품목을 선정해 할인판매 한다.

6일에는 누룽지, 반건시, 송화고버섯, 혼합잡곡을 판매한다.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수상하데이'를 통해 명절과 연말연시에 집중구매가 이루어지는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을 평상시에도 수시로 쇼핑물을

방문, 구매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2022년 오픈한 명실상주물은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상품 선정, 다양한 기획전과 할인행사 등을 통해 단기간에 현명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쇼핑몰로 자리매김하며 농가의 판로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명실상주물은 소비자 여러분이 1년 365일, 언제나 방문해 구매할 수 있는 인터넷 장터지만 그중에서도 수요일은 특별하다. 주간특가 행사인 수상하데이가 있기 때문이다.

명절이 아니더라도 자주 방문해 다양한 혜택과 함께 상주시 농특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명품 쇼핑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성주군 영천리, 화재없는 안전마을 선정

성주소방서, 주택용소방시설 보급 활성화



성주군 금수면 영천리 마을회관에서 지난 4일 오전 성주소방서 주관, 화재없는 마을 선정 시상식 및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보급을 통한 주택용소방시설로 화재 없는 안전마을

만들자'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황희성 금수면장, 안재경 성주소방서 예방안전과 과장, 도재관 영천리 이장, 금수면의용소방대원, 마을주민 등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성주군 화재없는 마을 선정(영천리) 시상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50개, 소화기 50개의 배부 및 사용법 교육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황희성 금수면장은 "먼저 우리 금수면 영천리 마을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료로 지원해 준 성주소방서와 오늘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이번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통해 영천리 어르신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재훈 기자

칠곡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칠곡군이 관내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군은 2024년에 대상 범위를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해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보험

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단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해 온라인 '청년e플립' 또는 칠곡군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조미경 기자

구미시, 로컬푸드 소비 촉진... 중소기업협의회와 손잡다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5일 구미시로컬푸드직매장 금오산점에서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회장 송원호)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상생·균형발전을 위해 로컬푸드 공급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역농산물을 우선 소비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농가 소득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유통비용 감소, 푸드 마일리

지 감축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역과 기업을 위한 각종 노동·행정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적극 지원하며, 상호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송경섭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상호교류 협력사업을 활성화해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은진 기자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2025

A P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에서

과거의 역사를
아우르고



현재의
경험을 나누고

미래의 꿈을
실현합니다

